

다니엘서 - 숫자 일곱

일곱 왕

Jeff Pippenger

2023-12-02

일곱 우레는 1798년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역사를 상징한다. 그 역사는 기원전 677년의 느밧세부터 기원전 586년의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일곱 왕들에 의해 예표되었다.

성스러운 개혁의 선들에서, 첫째 천사가 권능을 받는 것의 한 특징은 전 세계적임을 가리키는 상징이다. 1840년 8월 11일, 첫째 천사의 메시지는 권능을 부여받았고 그 메시지는 이어 전 세계의 모든 선교 기지로 전해졌다.

"1840-44년의 재림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것이었으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 모든 선교지에 전파되었다." 대쟁투, 611.

그때 예언적으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강림하여 한 발은 땅 위에, 다른 한 발은 바다 위에 두었다. 화이트 자매는 그것을 그 메시지의 전 세계적 범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다른 한 발은 땅에 딛고 있는 그 자세는 그 기별 선포의 광범위함을 나타낸다. 그것은 드넓은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아가 온 세상에까지 선포될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7권, 971쪽.

사이러스가 반포한 첫 번째 칙령은 전 세계적인 칙령이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를 내리고 또 글로도 반포하여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내게 명하셨느니라. 너희 중에 그의 모든 백성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그는 하나님이다)의 집을 건축할지니라. 또 어느 곳에 머물러 남아 있는 자가 있거든, 그곳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자원제물 외에도 은과 금과 재물과 짐승으로 그를 도울지니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감동시키신 모든 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러 올라가니라. 에스라 1:1-4.

1840년 8월 11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 세계 모든 선교지로 전해졌던 것처럼, 고레스는 첫 번째 칙령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땅의 모든 나라들의 왕"이라고 밝힌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곧 화이트 여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힌 그 천사의 강림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능력 있는 천사와 동일한 예언적 특성을 지닌다. 화이트 여사는 첫째 천사의 목적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밝힌다.

"예수께서는 힘센 천사에게 내려와 땅의 거민들에게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경고하라고 명하셨다. 그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의 임재를 떠나자, 지극히 밝고 영광스러운 빛이 그의 앞서 나아갔다. 나는 그의 사명이 그의 영광으로 땅을 밝히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임을 들었다." Early Writings, 245.

첫째 천사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 요소를 강조하는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세례 때 권능을 받았다.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다고 증언한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요단 강 주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마태복음 3:5, 6.

그리스도의 사역은 고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고, 그런 예언적 의미에서 온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인 요단강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세례의 예식과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것이 상징한 바는 온 세상을 향한 것이었다.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라는 뜻이며,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요한이 그리스도를 물에서 끌어올렸을 때, 물의 무덤에서 '일어남'이라는 표징이 그 권능 부여의 한 요소가 되었다. 우리가 이미 인용한 에스라서의 첫 네 절 다음의 5절은, 그 칙령을 들은 자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은 말로 밝힌다. "그때 유대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일으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러 올라가려 한 모든 자들이 일어났다." 첫 번째 메시지가 권능을 입을 때,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듯이 일어남이 있다.

2001년 9월 11일, 셋째 천사의 강력한 운동의 첫째 기별은 첫째 천사의 강력한 운동의 첫째 기별이 권능을 받았던 것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권능을 받았다. 화이트 자매는 그 날짜의 트윈 타워 파괴에 대해 언급한다.

"이제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려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가? 나는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곳에 층층이 세워져 올라가는 거대한 건물들을 보면서,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심히 진동시키실 때 어떤 무서운 장면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 요한계시록 18:1-3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이 땅에 임할 것들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나는 뉴욕에 무엇이 임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빛을 받지 못했다. 다만 언젠가 그곳의 거대한 건물들이, 뒤집고 또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질 것을 안다. 내게 주어진 빛에 의하면, 세상에 파괴가 있음을 안다. 주께서 한 말씀만 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한 번만 닿아도,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장면들이 전개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06년 7월 5일.

십사만 사천의 역사에서 첫째 기별에 권능이 부여될 때, 주께서는 "일어나셔서" "땅을 심히 흔드시려고" 하셨다. 여호야김의 이름은 첫째 기별의 권능 부여를 상징한다. 1840년 8월 11일, 주께서는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땅으로 내려오셔서 땅과 바다 위에 서셨다. 고레스의 첫 칙령 때에, 신실한 자들이 일어났다. 여호야김은 단지 첫째 천사의 도래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천사의 권능 부여도 상징한다.

여호야김은 마지막 세 왕 중 첫째를 대표하지만,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끈 일곱 왕 중 다섯째를 대표하기도 한다. 그 일곱 왕의 이름은 매우 많은 것을 말해 준다. 그 일곱 왕은 므낫세, 아몬, 요시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였다.

밀러파의 역사에서 므낫세는 1798년의 끝의 때를 상징한다. '므낫세'는 '잊게 하다'라는 뜻이며, 두로의 음녀가 칠십 년 동안 잊혀지는 때가 1798년이다. 므낫세는 가장 사악한 왕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주목해야 할 예언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유다의 마지막 일곱 왕은 1798년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일곱 우레의 역사를 나타낸다. 므낫세는 그 일곱 왕 가운데 첫째였고, 일곱 가운데 첫 왕으로서 그는 일곱 왕 가운데 마지막인 시드기야를 예표했다. 예수님은 언제나 끝을 처음과 동일시하신다. 일곱 왕 가운데 마지막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다. 마지막 일곱 왕들 가운데 첫 왕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는 마지막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을 예표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그들에게 오게 하시니, 그들이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므낫세를 붙잡아 사슬로 결박하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스스로 낮추며 그에게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때에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역대하 33:10-13.

므낫세가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왕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도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자기 왕권을 빼앗겼다가 이후에 회복될 때 주를 알게 되었다.

그 날들의 끝에 이르러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였으며,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였나니,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느니라. 땅의 모든 주민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겨지며, 그는 하늘의 군대와 땅의 주민 가운데서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의 손을 막거나 그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채가 내게 다시 돌아왔으며, 내 모사들과 귀인들이 나를 찾으며, 내가 내 나라에 굳게 세워졌고, 지극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모든 일은 진리요 그의 모든 길은 공의라. 그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능히 낮추시느니라. 다니엘서 4:34-37.

므낫세의 경험이 느부갓네살에게서 재현되었다. 므낫세는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의 역사에서의 '마지막 때'와 칠십 년 포로 예언의 도래를 대표한다. 느부갓네살은 세 칙령의 역사에서의 '마지막 때'를 대표하는데, 이는 1798년이 일곱 우렛소리의 역사에서 '마지막 때'였던 것과 같다. 방금 인용한 구절들에서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날들의 끝'에 그에게로 돌아왔다. '날들의 끝'은 다니엘서 12장에서도 언급된다.

그러나 너는 끝날 때까지 네 길을 가라. 네가 쉬리니, 끝날에는 네 분깃에 서리라.
다니엘 12:13.

다니엘서 12장의 "날들의 끝"은 "끝의 때"이다. 이는 다니엘이 "끝이 이를 때까지" 가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다니엘은 "자기 분깃에 설" 것이다. "자기 분깃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뜻하며, 다니엘은 그의 책이 날들의 끝, 곧 "끝의 때"에 봉인이 풀렸을 때 그 목적을 이루었다. 그때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깨달을 "지식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날들의 끝에 그의 "총명"이 그에게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 그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분깃과 처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Manuscript Releases, 제6권, 108.

므낫세는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의 역사에서 '마지막 때'를 대표하고, 느부갓네살은 세 칙령에서 '마지막 때'를 대표한다. 므낫세의 뒤를 그의 아들 아몬이 이었다.

아몬은 '훈련'을 의미하며, 봉인이 풀린 메시지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훈련시키게 될 '지식의 증가'가 있었던 기간을 나타낸다. 그 뒤 아몬을 이은 이는 요시야로, 일곱 명 중에서 예언적 역사가 비교적 좋지만 복잡한 유일한 왕이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기초'를 뜻하며, '끝의 때'에 봉인이 풀린 진리들을 확립하는 것을 상징한다. 아몬으로 상징된 지식의 증가는 가브리엘과 다른 거룩한 천사들의 인도하심을 통해 윌리엄 밀러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운동의 토대를 그가 세웠기 때문에 밀러의 사역은 요시야라는 이름으로 표현된다. 요시야에 관해 더 밝혀야 할 것이 많지만,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로 넘어가겠다.

여호아하스는 스물세 살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립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었다. 그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바로 느고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맛 땅 립라에서 그를 사슬로 결박하고, 그 땅에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의 조공을 부과하였다. 바로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아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으며, 여호아하스를 끌고 갔다. 그는 이집트에 이르러 거기서 죽었다. 열왕기하 23:31-34.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는 뜻이며, 그는 바로느고에게 붙잡혔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바로느고에게 붙잡혔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의 형제 엘리아김으로 대신되었다. 이어서 바로느고는 엘리아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다'라는 뜻의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다. 이름의 변경은 언약적 관계의 상징이며, 첫 번째 메시지가 권능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동시에 이전의 언약 백성을 지나치신다.

1840년 8월 11일, 391년 15일 동안 풀려 있었던 네 바람으로 상징되던 오스만 제국은 억제되었고, 혹은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처럼 '붙잡혔다'. 동시에 엘리아김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라는 뜻의 여호야김으로 바뀌었다. 여호야김 뒤에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어졌는데, 그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은 '주께서 세우시고 확립하실 것이다'라는 뜻이다. 그는 여호야김의 아들이며 1844년 봄 둘째 천사의 도래를 가리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고 참된 개신교의 뿌를 '세우고 확립하셨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한밤중 외침의 기별로 능력을 받았고, 여고냐와 고니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라는 뜻이다. 같은 뜻을 지닌 이 세 이름은 한밤중 외침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결합되는 것을 나타낸다. 큰 외침 동안 성령의 마지막 부여주심 가운데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다. 십사만 사천의 인침은 밀러주의 운동의 한밤중 외침에서 예표되었고, 여호야긴은 여고냐와 고니야라고도 불리며 그 인침의 상징이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비록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빼내리라. 내가 네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레살의 손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기리라. 또 너와 너를 낳은 네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그 땅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가 멸시받아 깨진 우상인가? 기뻐함이 없는 그릇인가?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 알지 못하는 땅에 던져졌는가?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레미야 22:24-29.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는 둘째 천사가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과 연합되는 인침의 때를 상징한다. 그는 미련한 자들의 인침의 때를 상징한다. 그 악한 왕은 인침의 때에 주님의 입에서 영원히 토하여 버려지기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는 미련한 라오디게아 처녀들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장은 그의 인이며, 십사만 사천 명을 인치는 동안 주님의 입에서 토해져 나온 자들은 손에 "일곱 때"의 다림줄을 가진 스룹바벨과 대조된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나라의 보좌를 뒤엎겠고, 이방 나라들의 세력을 멸하겠으며, 병거와 그 탄 자들을 뒤엎을 것이요, 말과 그 탄 자들이 각각 그의 형제의 칼에 앞드러지리라.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 종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취하여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였느니라. 학개 2:21-23.

"일곱 때"라는 "걸림돌"은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이며, 그는 하나님께서 십사만 사천 명을 인치시는 데 사용하시는 "인장"으로 표상된다. 그 인장, 곧 "표"는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놓인다. 그 탄식과 부르짖음은 인침 받은 자들의 체험을 특징짓고, 서명과 부르짖음은 "일곱 때"라는 처방에 대한 그들의 내적 반응의 상징이다. 그것은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은 2020년 7월 18일의 실망 이후 줄곧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빌라델비아가 라오디게아로 전환되던 기간인 1863년에 실패했던 시험이다. 그것은 고니야로 대표되는 이들이 영원히 어리석은 라오디게아의 처녀들로 확정되고,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이들이 영원히 지혜로운 빌라델비아의 처녀들로 확정되는 시기를 예표하였다.

여호이친 다음으로, 일곱 왕 가운데 마지막인 시드기야가 뒤를 이었다. 므낫세가 1798년과 '끝의 때'를 상징했듯이, 시드기야는 환상이 '말하고, 거짓되지 않을' 1844년 10월 22일을 상징해야 한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결합된 것이다. 하나는 '여호와'이고, 다른 하나는 다니엘 8장 14절에서 '정결하게 되다'로 번역된 단어이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의 정결을 의미하며, 그것은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되었다.

유다의 마지막 일곱 왕은 1798년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 점진적으로 전개된 역사를 대표한다. 여호야김은 1840년 8월 11일을 상징하며, 그 날짜는 다시 2001년 9월 11일을 대표한다. 그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권능 부여를 상징하며,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소개된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장의 배경과 문맥은 계시록 10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권능 부여이다. 계시록 10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이 먹으라고 명령받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내려오셨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첫 시험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유이다.

다음 글에서도 이 주제들을 계속 다루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놓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이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3:3.